박재완의 PhotoEssay



나한전에서

나와 닮은 얼굴 하나쯤 있다고 해서
그 얼굴 하나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눈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분명하던지
그 눈과 눈 사이를 겨우겨우 걸었다
그 눈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깊고 깊던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나는 힘들었다
나와 닮은 얼굴 하나, 어림도 없었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㊶ 배명인 前 법무부장관

이 시대 유마거사…사형수 최재만 양자 삼아

사형수 포교를 하면서 은혜도 입고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고 싶은 이가 있다. 바로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이다. 어찌보면 잊을 수 없는 내 인연중 첫 번째로 소개해야 마땅하나, 본인의 공적을 언론에 드러내길 꺼려하는 강직한 성품을 아는지라 여러번 망설였다. 하지만 역대 법무부장관중 교정행정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배려가 많던 분인 만큼, 내 사형수 포교의 큰 인연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기에 늦게나마 소개한다.

BBS불교방송이사와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를 지낸 배 장관은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82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또한 1986년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에 참여했으며,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지낸 거물이다.

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교정 행정에 관심이 많았다. 1983년 교정대상도 제정하고 교도관들의 처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독실한 불자로 중생심과 자비심이 많아 어려운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도움도 주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법무부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배 장관은 재임중 내가 사형수 포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 직원에게 삼중 스님의 공적을 조사해서 포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것이 내가 받은 상중 최초의 상이었다. 나에게는 과분했다. 배 장관의 추천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받은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직중에는 그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5년 초여름, 그가 퇴임한 후 배장관의 집에서였다.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몇 분 얘기해보니 나는 그가 상이 없고 아주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형수 최재만의 구명 운동에 대한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후 2시간 동안 최재만을 살려야 된다고 집요하게 몰아 부쳤다.

최재만 사형수 구명 운동으로 처음 인연
법무부장관 당시 1983년 교정대상 제정
겸손과 강직한 성품에 자비심 많은 불자

그리고 나는 최재만이 건네준 염주알도 보여주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금강경〉이었다. 그리고 염주알 하나에는 '나는 억울하다'고 새겨져 있었으며, 그 옆에는 '必歸家(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글씨가 새겨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삼중 스님, 최재만 부부,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 순.

그것을 본 배 장관은 놀랐다. 어떻게 사형수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단 말인가. 배 장관에게 나는 최재만 사형수의 기구한 사연과 피맺힌 하소연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구명을 호소했다. 모두 듣고 난 배 장관은 "나는 사형 존치론자이지만, 자칫하면 내가 재임시에 아까운 생명 하나를 빼앗아버릴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구명 운동에 관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배 장관과 나는 서옹 큰 스님, 당시 정해창 장관 등과 합심해 최재만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구명하는 데 성공했다.

배 장관이 최재만을 처음 만나면서 한 명법문은 지금도 내 기억속에 또렷이 자리잡고 있다. 배 장관은 최재만에게 "중국의 어느 왕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왕사가 급히 뵙기를 청했다. 빨리 바둑을 끝내기 위해 왕은 "죽여 죽여"라고 외쳤다. 바둑서 자기 집을 죽이라는 말이었는데, 잘못 이해한 신하는 기다리던 왕사를 죽여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왕사께서 혹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냐고 묻자, 신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십생전에 왕께서는 지렁이셨는데 땔나무꾼인 왕사의 낫에 걸려 토막이 나 죽었다고 했다. 십생전 내가 무심히 죽인 그 업보로 금생에 이렇게 무심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왕에게 다음 생에는 빚없이 만나자고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그 일화를 들려준 배 장관은 최재만에게 네가 지금 고문 받고 사형수로 있는 것도 모두 전생의 업보이니 그냥 있는 현실을 받아 들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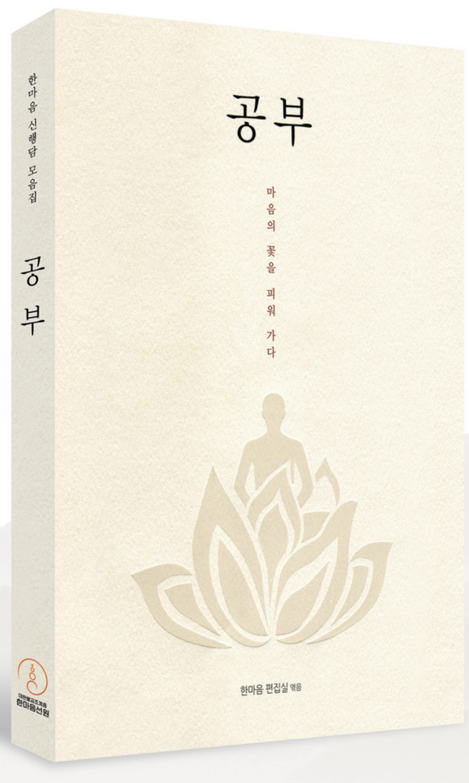
배 장관은 또한 최재만 사형수의 이야기를 다룬 MBC 수사반장 부처님오신날 특집 방송 당시 담당 PD의 끈질긴 설득에도 한사코 거절했다. 배 장관은 "내가 한 것도 없으니, 내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고사했다. 내가 간절히 부탁하자 대역만은 써도 좋다고 허락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인간의 참회가 가장 아름답다' 는 배 장관이 내 책의 추천사에 쓴 글귀는 지금 읽어도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부처도 물들면 중생이 되고, 중생도 깨치면 부처가 되는 법, 생사가 일여(一如)이므로, 죽음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는 분명 내가 만난 이시대의 유마거사 이다.

정리=김주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